

푸른 용 붉은 깃발

의정부 신곡동에 휘날리는 붉은 깃발을 보셨나요.
그 곳이 청룡마을입니다.



청룡마을



푸른 용
붉은 깃발

목차

만든 사람들 이야기

Part 1.
청룡마을 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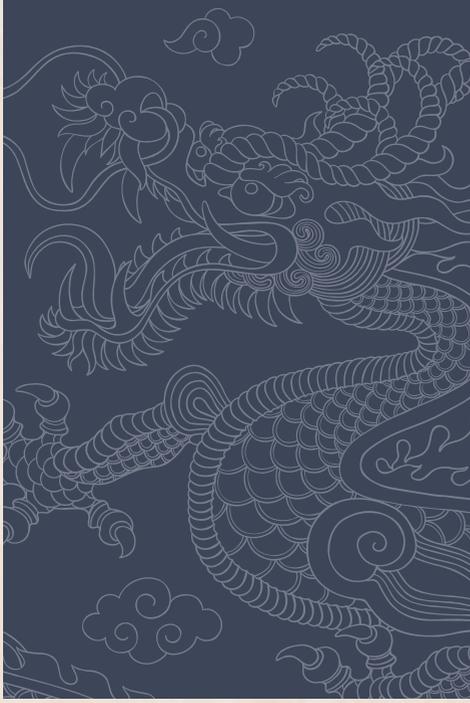
Part 2.
청룡마을에는 무속인들이 모여있다.

Part 3.
청룡마을 사람들 이야기

Part 4.
청룡마을 산책 풍경

Part 0.

만든 사람들



송재용 (전)파티버스코리아 대표
citygeorge@naver.com
의정부와 관광의 이중교배 공급자.
길바닥 꽃중년 크리에이터이자 트래블메이커
"니 곁에 서면 난 travel maker~"

류자영 민들레홀씨 대표
instagram@mindeule_holssi
의정부 토박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와
소소한 일상의 생활문화기획자

김세영 마을씨어터골드 대표
ksjbyh_@naver.com
의정부가 낳고 기른 예비 문화 기획자

조은지 Art bowl project 대표
likejojomuffin@gmail.com
시각예술 매개자 또는 미술 선생님

멘토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마을에서 주민들과 문화기획을 한다는 것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화기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일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일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
력의 결실이 이 작은 책자에 담겨 있다.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 결과물이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어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팀의 대표를 맡으시느라 고생하신 류자영님, 무속인과 주민들의 인터뷰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김세영
님, 발품을 팔아 훌륭한 마을지도를 완성하신 송재용님, 마을의 모습을 감성적인 사진과 글로 기록하
신 조은지님. 부족한 멘토였지만 퉁출어람, 다들 잘하셨습니다. 'Good판 휘끼휘끼' 팀, 화이팅!

제작
송재용



청룡마을



Part 1.

청룡마을 가는 길

의정부 원데이 컴집 트립 추천코스
청룡마을 무속인촌 상제도

Part 1.

청룡마을 가는 길



송재용

청룡마을 가는 길

버스로 떠나는 청룡마을 여행

로드뷰 차량이 못가는 골목골목이 적지 않다. 미리 컴집에 예약된 경우가 아니면 자차는 추천하지 않는다. (주차하다 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독자의 무병장수를 위해 청차 버스 노선을 정리해 본다.

청룡마을이 어데야?

청룡마을 무속인촌은 위로는 신곡교와 아래로는 신의교, 좌로는 중랑천과 우로는 동일로변 신곡지하차도 사이의 블록을 말한다. 특히 컴집 밀집 구역은 청과물시장 다리 건너 버스정류장(신곡교) 주변이다.

어서와! 의정부는 처음이지?

의정부 하루만에 여행하기

- 1 역전근린공원, 아트캡프 (1호선 의정부역)
- 2 젊음의 거리 (행복로)
- 3 부대찌개 거리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 4 의정부 케일시장(상행)
- 5 벽화 투어 (중랑천변과 청룡마을)
- 6 컴집 방문 (청룡마을 무속인촌)
- 7 의정부 케일시장(하행), 녹색 거리(행복로)
- 8 의정부역 서부광장, 신시가지 (경전철 의정부역)

신곡동 청룡마을 점집 핫스팟

버스정류장 신곡교 (08160) 의정부초등학교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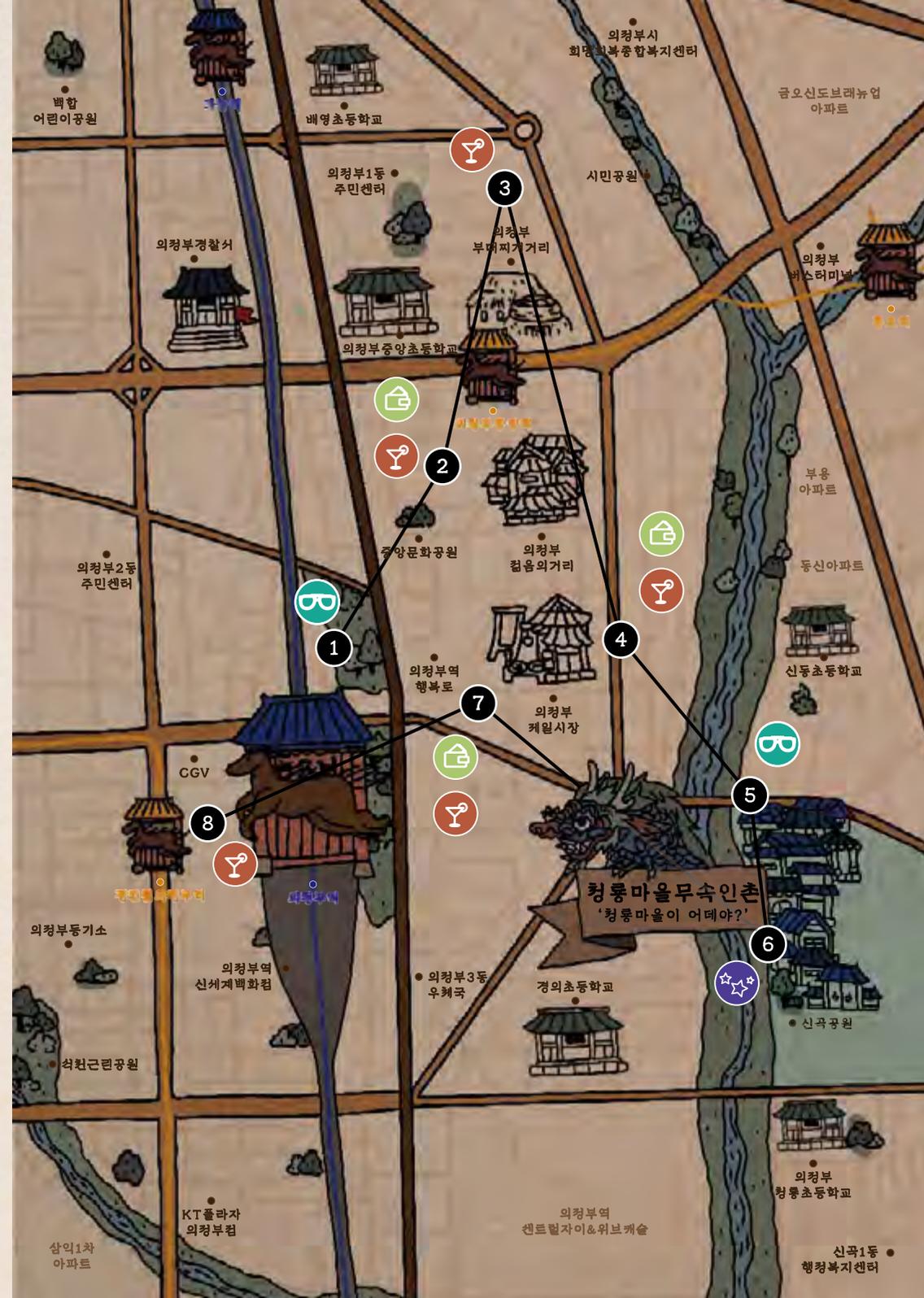
- * 의정부역 1호선 : 1km 도보 15분
- * 부대찌개 거리 : 1.2km 도보 19분
- * 의정부 경전철 발곡역 : 1km 도보 16분
- * 의정부 케일시장 : 0.4km 도보 5분

일반버스

- 1
- 1-5
- 1-7
- 23
- 3
- 56

마을버스

- 201
- 201-1
- 202-1





칭룡마을 침집지도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는 이케 그만!

- 1 큰길 따라 부릉부릉 (버스 칭류장 하차 동선)
시민로 186번길 진입 영민슈퍼 벽화 골목
- 2 돌길 따라 허푸허푸
신곡교에서 남쪽으로 150m 삼거리 좌회전
- 3 벽화 따라 골목골목
장곡로 364번길 재즈밴드 벽화끼고 좌회전
- 4 권철 타고 덜컹덜컹
의정부 경권철 발곡역 1번 출구 신의교 방면 진입

1 냇불사대신	16 이법사	31 선녀대신	46 퉁솔암
2 권능사	17 용궁보살	32 친신글문	47 부용당
3 보연암	18 심령사	33 초연당	48 대신당
4 용궁신당	19 해월암	34 봉연암	49 해궁당
5 군웅도사	20 퉁지신당	35 흥륜당	50 태고사
6 여래암	21 퉁신동자	36 청신암	
7 퉁신당	22 퉁상선녀	37 미륵암	
8 상용암	23 퉁상대신	38 백련암	
9 퉁궁신당	24 용현암	39 이보살	
10 일월사	25 보덕암	40 도운암	
11 작두장군보살	26 견능암	41 퉁명사	
12 퉁상선녀	27 퉁불암	42 용신암	
13 조계암	28 퉁운암	43 등불보살	
14 속리산보살	29 강씨부인당	44 황해도 작두만신	
15 독방장보살	30 법상선녀	45 명화당	

* 20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제작된 지도입니다.



에세이
류자영

Part 2.

청룡마을에는 무속인들이 도여있다

청룡마을과 성북구 점성촌
고사와 할로윈
무속신앙과 공동체



Part 2.

신곡1동 청룡마을에는 무속인들이 모여있다

류지영

2021년 9월 19일에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은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구주택가였고, 인척이 드물고 조용했다. 청룡마을은 청룡초등학교의 2차로 도로를 사이로 오래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처럼 보였다. (의정부 신곡동 602-13번지 일대)



마을에 위치한 재개발 준비위원회

‘의정부에서 가장 낙후되어 재개발이 시급하다’라는 현수막과 재개발 관련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다. 이 지역은 여러차례의 재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고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이 해체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은 자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듯 보였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주민들이 이주하고 세를 주고있는 집이 많아 보였는데 세입자 중에 무속인들이 많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저렴한 집세와 무속인들에게 세를 주는 임대인들이 많아 모이게 된 것도 이유가 된 것도 같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2,30여년 전이라고 한다. 마을에서 40여 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재개발에 반대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마을은 협하다고 어르신이 말씀하신다.

노후화되고 조명도 어두운 이 마을에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청룡마을 노후주택 외벽 도색사업’을 하였다. 신곡1동에

개관한 음악도서관의 테마인 ‘블랙뮤직’을 주제로 벽화를 꾸몄다고 한다. 노후된 마을 벽에 화사한 컬러로 벽화를 그리니 분위기도 밝아지고 골목 조명도 밝게 하였다 하니 어두운 밤에 골목이 으스스해지지 않아 좋아진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벽화로 마을주민들의 삶이나 갈등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블랙뮤직을 주제로한 벽화

Part2. 신곡1동 청룡마을에는 무속인들이 모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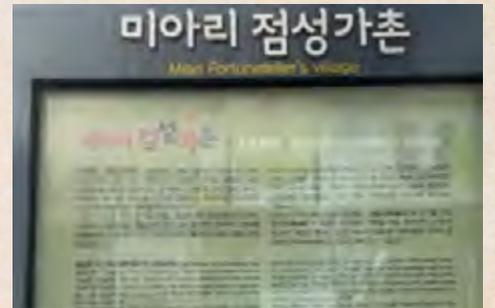
마을주민분들과 무속인들의 청룡마을에 관련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무산되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우연히 만나 뵙는 분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삼색기가 나부낀다

청룡마을에 무속인들이 모여있다 해서 이 마을을 무속인 특화구역과 같은 지역 특색이라 하고 무속신앙에 대한 문화적 접근, 이런 접근은 반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청룡마을에 무속인들이 많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다.

청룡마을의 무속인 집성촌처럼 무속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곳이 없었고 ‘킴킴’이라는 검색을 해보자 ‘의정부 킴킴’, ‘미아리 킴성촌’이 연관검색어로 보였다.



미아리 점성가촌 소개

그래서 서울시 청북구의 미아리 킴성촌으로 불리는 ‘미아리 역학촌’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아리에는 1960년대부터 킴성촌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도 저렴한 방값으로 서울 여러 지역의 킴술인들이 도심개발로 인해 이곳으로 모였다고 한다.

미아리 역학촌은 1980년대 큰 호황을 누렸고 현재는 2014 서울시가 신청하는 '미래유산'에 선정되었다.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지칭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한때 이곳도 1990년대 성북구가 전통의 거리로 개발하려 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현재 의정부 청룡마을의 무속인들이 모이게 된 이유와 비슷하고 이러한 무속신앙이 종교의 문케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함께해 온 풍속이며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고 개인, 가정과 온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던 이러한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고 현대사회의 공동체 해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승, 전승해나가고 지켜야 하는 우리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Part2. 신곡1동 청룡마을에는 무속인들이 모여있다.

고사(告祀), 헬로윈,할로윈 (Halloween)

추석이 지나자마자 sns에서는 '이케 추석이 지나고 곧 할로윈이네요'라며 할로윈이 다가오니 설렌다며 할로윈 관련 행사나 물품 홍보에 열을 올린다.

추석이 지나면 할로윈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곳은 한국+미국인 나라인가?

쓰쓸함과 착잡함이 함께 몰려온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아주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닥 싫어하지도 않고 애국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혼, 정체

성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후에 서구문물에 열을 올리고 서양의 것이 세련되고 선진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며 특히 미국 문화를 동경했던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그 시기부터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를 외식 때 먹어야 세련된 사람이고 생일축하할 때는 꼭 서양의 케이크에 초를 꽂고 요즘에 생일에 떡을 하는 집보다는 케이크를 사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다.

이러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할로윈, 그 작은 언케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주한미군과 미국 유학생들이나 이태원에서 하던 할로윈 파티에서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영어유치원이 생겨나면서 영어유치원에서 할로윈파티를 하니 일반유치원, 어

린이집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따라 하더니 이케는 컨국이 할로윈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할로윈 커스텀을 구입하고 사랑과 젤리를 잔뜩 사서 주고받곤 한다. trick or treat?

외국의 문화라고 나쁜 것은 아니고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도 마찬가지지만 상술인지 문화인지 모를 이러한 형태의 할로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맥락의 우리나라 고사(告:고할 고,祀:제사 사)가 생각이 나서이다.

요즘에는 이 고사도 지내는 집이 드물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전통세시 풍속과 무속신앙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미신, 귀신을 신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귀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 요즘은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싫어 교회를 다닌다는 분도 있다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세시풍속은 종교가 아닌 '전통문화'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현대사회에 맞게 어른들이 나서서 제사의 차림을 간소화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로 바꿔서 '제사'라는 이야기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신나고 재밌는 일로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물

리치는 의식으로 계승이 된다면 좋겠다.

이러한 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나서서 지역문화축제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획으로 고사(告祀)의 의미도 알리고 여러 형태의 고사 중 추석이 지나고 수확을 끝마치며 지내던 고사(음력 10월)의 시기는 할로윈의 시기와도 비슷하다. 각 지역마다 고사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헬로윈, 할로윈 Halloween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축제 '사윈(Samhain)'에서 유래했으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할로윈은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르는 소규모 지역축제였다.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30년대 무렵이다. 매년 10월 31일 그리스도교 축일인 만성절 전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이다.

사윈 기간이 되면 켈트족은 방목해 기르던 가축을 불러들이고 농작물을 거둬들이며 새해맞이를 준비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

라고 악령을 쫓았다. 이때 악령들의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됐다. 음식을 차려 죽은 신에게 케익을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온하기를 기원하고, 악한 존재가 심술을 부리거나 산 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빌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평안과 안녕,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천 세계가 다 같을 것이다. 문화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바라는 마음을 같은 것 같다.



할로윈

할로윈도 켈트족의 죽은 신에게 올리던 의식에서 기원한 것이나 현재 하나의 축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고사도 우리나라 축제문화로 발전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화가 일상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해 전통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같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것이 소중하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되어왔듯이 일상에서 행해

지는 작은 실행들이 몇십 년 뒤에는 우리의 고사가 할로윈이 되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천 세계로 뻗어가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서 고유한 문화, 전통문화로 즐겁게 만들어져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고사

가을고사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고사를 지낸다. 고사의 날짜는 만신이 잡아 주거나 책력을 보고 택일한다. 마을에서도 공동체 케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는 마을고사 전에 집고사를 하기도 하고 마을고사 후에 지내기도 한다.

마을에 출산이나 초상 등 부정이 들면 날을 연기한다.

날을 잡으면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또한, 택일한 그 날부터 집안의 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고사 날이 되면 집안의 안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을 청결히 하여 시루를 찐다. 백설기와 팔시루를 집안에 모시는 신령별로 별도로 찐다. 하지만 요즘에는 팔시루를 많이 찐다. 떡이 잘 찌지지 않아 쌀가루가 묻어 나오면 좋지 않다고 여겨 떡을 찌 때는 잘 익게 해달라고 손을 비비며 계속 절을 한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이웃 및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렇게 하면 집안이 무고하고 이듬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청주고사는 안주인에 의해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할 때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청주굿, 청주받이굿 혹은 안택굿이라 한다.



정성으로 차린 고사상

10월 상달의 청주굿이나 집을 새로 지어 들어갈 때 행하는 청주굿에서 불리는 청주풀이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고사는 각 개인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례인 만큼 집마다 의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10월의 의례 중 산신케나 시케는 집 밖에서 남자들에 의해 행해지는데 청주고사는 집 안에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10월 월내에 “집집마다 무당을 데려다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시월은 상달이라 하여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에 감사하는 고사를 지낸다. 시기는 무오날(戊午日)이 가장 좋다고 한다. 무오날에 고사를 지내면 낫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무오날이 없을 때에는 10월 초 또는 하순에 지내기도 한다. 10월 스무날은 손돌이 죽은 날이라고 하여 이날 집고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전통문화와 공동체

이렇듯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무속신앙을 통해 가정과 마을을 결속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교, 유교, 도교의 전래와 함께 융합해 무속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며 기독교의 급속한 전파와 새마을 운동을 통한 계몽운동이 펼쳐져 마을 입구에 있던 마을 신앙 대표



마을에서 함께하는 고사

격인 서낭당 돌무더기와 신목(神木) 등이 잘려나가고 집안 신앙으로 구석구석 자리 잡은 신격인 성주, 산신, 터주, 조왕, 대감, 업, 문신, 곳간신 등이 서서히 없어져 무속 신앙은 크게 사라지고 말았다.

계몽운동으로 근대화되고 선진화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은 맞으나 그동안 집안과 마을을 하나로 결속해주는 고리는 상당 부분 없어지고 이상숭배로 치부하며 집안의 제사와 차례를 부침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무속신앙이 근대화 속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전승되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미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체가 많이 줄고 무속신앙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함께 개인과 가정, 마을의 결속력이 좋아져 지금과 같은 이상숭배, 신검과 굿으로 인한 사기와 같은 이미지가 아닌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빌고 서로를 위한 생활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의정부의 지역문화와 공동체성을 위한 기획으로 예전의 마을 단위의 작은 축제로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굿과 시루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던 우리의 풍속을 현대에 맞게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 내용과 의미, 놀이는 의정부 지역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가며 의정부 지역문화로 발전, 자리매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Part 3.
**청룡마을
사람들
이야기**

청룡마을 사람들 이야기

김세영

마을주민 1

무속인

Q1. 어떤 분들이 이곳을 주로 찾나.

신도들이 신명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 우리는 조상신을 모신다. 툇신, 만신을 모신다. 만신은 수백 가지의 신을 말한다. 산신, 용궁신, 지신, 조왕신 등등



Q2.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나는 모진 세월을 살아냈다. 30대 초반 젊은 시절부터 호떡 장사, 호두과자 장사 등 몸파는 일과 도둑질 빼놓고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고 돈을 다 잃고.... 2004년도, 내 나이 마흔일 때, 서울 우이동에 살 때다. 결정적으로 '새끼를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듣고 평민으로서의 삶을 포기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6개월 동안 신엄마와 함께 일을 다녔으나 신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고 무지한 사람들을 등켜먹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 좌절을 맛보았다.

Q3. 그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매우 자주 기도를 하러 간다. 동해, 서해, 남해, 계룡산, 속리산, 소백산의 산청상에 가서 기도한다. 영을 받게 닦는다. 신도를 위해 빌어줘야 한다.

Q4. 직업에 따른 사명감이 있다면.

가슴 속에 한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한과 설움이 있어야 이 사람의 혼과 설움을 읽어 줄 수 있으며 내가 이 사람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헤아려야 한다.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 설움이 내 것이 되어 버린다. 침사를 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게 된다. 그리고 신의 말이 들린다.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썼다.' 우리는 신의 이야기를 평민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이다. 중간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다 보니 100%는 없다. 나는 다른 일 반보살이랑 상대 안 한다. 나는 인간세계에 산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신의 마음보다 인간의 마음에 쏠린다. 그러나 신의 마음으

로 봐야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

Q5. 보통 어떤 목적으로 굿을 하는지.

보통 조상에서 얽히고 설킨 데가 많으면 굿을 해서 풀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태을령 (낙태된 영혼)도 해코지를 한다. 그 영혼을 굿을 통해 잘 달래 줘야 한다. 그래야 해코지하지 않거든.

Q6. 마을과 관련한 무속 활동이 있을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재수굿'을 할 수 있다. 즉 길문을 열고 1년 열두 달의 액을 풀어주는 것이다. 통대지를 몇 마리 잡느냐에 따라 그리고 떡, 과일, 견, 보살들 식사비 등에 따라 재수굿의 규모가 달라진다.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저녁 시에 끝난다. 약 5~6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청월 달에 '홍수 매기'라는 굿을 시청 앞에서 한다. 아마 경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일 것이다.

Q7. 언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나.

의정부에 들어온 지는 15년째다. 2005년 녹양동에 간판도 없이 깃발만 꽂고 신당을 차렸다. 2016년도에 이곳 청룡마을로 이사를 했다.

마을주민 1

무속인

Q8. 마을에 유독 점집이 많다.

동네에 점집이 많아도 점기는 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합이 전혀 안 된다. 무속인들은 단합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점집들이 연합하거나 해서 마을을 위한 일을 도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삼죽오 연합회 양주지부에서 일을 맡고 있다. 처음부터 거기 소속으로 일을 해서 의정부에 살지만, 소속은 양주다.

Q9. 왜 점집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게 됐나

의정부에 점집이 많은 동네는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왜냐하면, 도봉동이 재개발되면서 의정부 호원동으로 밀려났고 호원동이 재개발되면서 신곡1동, 의정부동 등지로 밀려났다.

Q10. 청롱마을에 살면서 좋은 점이 있나. 마을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청롱마을에 대해 좋은 점은 별로 없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내 집 앞에도 차를 못 댈 때가 많아 동네를 몇 바퀴씩 돈다. 올해 2021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독방 벽화를 칠할 때 나도 냉커피 대접했고 지금도 동네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들에게 박카스를 대접한다.

그런데 새로 그려놓은 벽화 담벼락에 '노상방노'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 때문에 악취도 말도 못 하게 난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 나쁜 점은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나온 쓰레기를 벽화 앞에도 버리고 간다는 점이다. 봄에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 지어 다니면서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가버린다. 세금만 낭비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마을주민 2

무속인

Q1. 주변이 전부 주택가인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경찰은 나와 봐야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여기서 십이 년째 살아도, 경찰이 온 일은 없었다. 이케 밑 집들은 또 그런 얘기. 잠자는 데 시끄럽네. 뭐 밤에 일하고 와서 낮에 자는데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얘기가 가장 많다. 통장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직접 오기도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

Q2. 그렇다면 원주민들과의 화합은 ?

나쁜진 않다. 나쁜진 않아. 우리가 일하면 그분들께 음식도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한다. 또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 어르신들을 아침에 만나면 아침 인사하고 점심에 만나면 점심 인사하면서 안부 정도 묻고 지낸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크게 불만이 없다.

Q3.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부터 봐온 문화이기에 더 익숙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 그런데 새롭게 이사 오는 분들은 경우가 다르다. 새롭게 이사 오는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까탈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근데 이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 우리가 먼거니까. 우리가 이곳에 더 오래 살았으니까. 결국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막 심하게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한 집 건너 다 무당집이잖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갖고 계시진 않는다.

마을주민 2

무속인

Q4. 마을이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외부에서는 마을이 피해해지지는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12년 차인데 그때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한다. 여기는 아마 주택개발로 될 것 같다

Q5. 주택개발이라는 건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

아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을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건립한다는 뜻이었다.

Q6. 그런데 보통 지주분들은 아파트가 지어지길 원할 텐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사시는 데가 개발되어 나

가시게 되면 그 돈 갖고 아파트로 갈 수도 없거든. 그 돈 갖고 나가서 전세를 얻고 산다고 해도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허락을 잘 안 하시지 않을까 싶다. 젊은 사람들이야 빨리 팔아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젊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그 돈 갖고 어딜 나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자식하고 살기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재개발이 완전히 확 되지는 않을 것 같다.

Q7. 이곳이 재개발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더라.

그렇다. 터미널 있고 조금만 가면 컨월역도 있고. GTX도 들어온다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니기가 무지하게 힘들다. 안 주거든.

Q8. 집이라는 건 신당까지 뜻하는 건가.

그렇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뭐 집이 망가진다 어쩐다....

Q9. 청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 않나.

모여 있는 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면 세를 안 준다. 심지어 집이 비어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달라 그러면 안 준다. 우리들이 벌어서 돈을 내면 어디가 이 상해지길라도 하는 건지, 안 준다. 참 희한한 일이지



마을주민 3

비두속인

Q1. 이 동네에 산 지 얼마나 됐나.

이 동네에 산 지는 2년 정도 되었다.

Q2. 왜 청룡마을로 오게 되었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원래 신곡 1동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청룡마을에 다가구 주택 경매 나온 것을 구입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재의 청룡마을을 다가구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Q3. 깃발이 흔들리기도 하고,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눈에 익지는 않은 풍경들이다.

나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무척 생경했다. 마을이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한 집 건너 찜집이 있고 이웃 간에도 거의 소통이 보이지 않았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 바로 옆 집 소년의 웅알거리는 소리가 바로 들리는 환경이었고 집의 구조는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워 마치 바깥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Q4. 이 마을에 살면서 좋은 점은?

앞집에 아주 다정하고 텃밭을 잘 가꾸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출근길마다 인사를 한다.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좋다.



Q5. 그렇다면 반대로 불편한 점 혹은 고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주차문제가 가장 어렵다. 밤늦게 오면 차 들 곳이 없어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도 없어서 다른 동네에 대고 오게 된다. 잘못 대면 새벽부터 전화가 오고 차를 빼라며 험한 말을 하고 얼굴을 붉힌다. 동네에 대한 인식이 몹시 안 좋다는 것을 가끔 느끼곤 한다. 가난하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노인이 많아서 재개발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들이 많다. 재개발이 안 되어도 지금의 거리를 깨끗이 유지하고 가꾼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마을주민 4

비두속인

Q1. 청룡마을에 오래 사신 것 같다. 얼마나 됐다.

내가 의정부에 다섯 살 때 왔고 이 마을에 들어온 건 여덟 살쯤이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다. 그 당시는 거의 집이 없었지. 논밭이었다. 여기가 활성화된 지는 20년 정도 됐다.

Q2.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하신 만신님은 누구신지.

돌아가셨다. 옛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동네를 나가셨다. 50년 전에는 한두 채뿐이었다. 그땐 거의 없었다.

Q3. 저기 있는 떡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낙원떡집을 가리키며)

원래 우리 집이었다. 여덟 살에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지은 집이다. 그때는 근방에 집이 거의 없었고 논밭이었다.

Q4. 청룡마을이 이렇게 두속인이 많아진 때는 언제부터인지.

5, 6년 전이다. 의정부3동에서 많이 넘어왔다.

Q5. 마을 전체에 찜집이 대략 몇 개 정도인가.

지금, 이 근방만 30곳이다. 신곡 1동을 다 하면 대략 200개 정도는 될 거다.

Q6. 전체적으로 찜집이 증가 추세인가.

내가 알기로는 보이지 않게 늘어난다. 교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Q7.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가.

많다. 한 집 걸러 교회 다닌다. 서로 종교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좀 아까 지나가신 분도 청당 다니신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지낸다.

Q8. 마을에서 점점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립적인 입장으로 봐야 할까.

생각을 해보라. (무숙 생활을) 안 하는 집에 사는 명절날 애들이 안 온다. 여기 분위기가 무섭다는 등. 대부분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이런 데 안 오려고 하지. 그런 날은 동네에 손님이 없다. 노인들이 자식 네로 간다. 그 사람들(무숙인)도 본인들의 자식들이야 오겠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꺼려진다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다. 여기 “이런 게 너무 많다.”, “여기로 못 다니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Q9. 듣기에는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들어온다던데.

아니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별로 없다. 냉동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여섯 명 정도. 세탁 공장이 있는데. 거기 우즈베키스탄인 두 명. 커쪽 건너편에 한 몇 명. 청룡마을 쪽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Q10. 여기 가스는 들어오나.

도시가스 들어온다. 민간 자본으로, 우리 주민들 자체 자금으로 만들었다. 시에서 안 해줘서. 400만 원씩 들여서. 그때는 기름 쓰면 한 달에 한 60만 원 나갔지.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해서 동의받아서 했다. 이케 가스가 겨울철만 20만 원, 15만 원 하니까 본전은 뽑았다. 한 지는 4년 정도 됐다. 얼마 안 됐지. 해 달라 해달라고 몇 년을 말해도 재개발 지구라고 안 해줘서 결국 우리 돈 내고 우리가 한 거다.

Q11. 곁에서 보기에 동네가 활성화되어 보이지만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하다.

생활 자체는 침체됐지. 침체된 지는 오래다. 재개발이 추진되려다 해체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다. 여기 있는 노인들의 자식들이 이케 재개발한다. 뭐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월세 받고 살고 계셔요.”, “생활비 쓰세요.”하고 나간다. 그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 재개발을 계속 반대하고 있지. 여기서 나가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재개발도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

Q12. 여기 노인 가구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1인 가구인가.

그렇다. 그리고 대부분 할머니들. 남자들은 별로 없다. 내가 63세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여섯 일곱 명 될까. 그리고 할머니들이 열댓 명. 조금 있으면 나와서 쪽 모여 앉으실 거다.

Q13. 그 핫한 데가 어딘가.

커어기 천봇대 옆에. (일동 웃음) 커기 초록색 의류 수거함 옆 주변으로. 그 주변으로 노인네들 몇 분 나와서 앉아계시지. 항상.



Q14.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은 안 여나 보다.

이쪽에는 없다. 이 동네는 없고. 동에서 하는 게 커쪽으로 좀 나가면 있다. 여기서 한 오백미터 정도 가면 공원 옆에 노인정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작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연다. 잘 안 가신다. 조금 걸어가야 하니까 귀찮아서. 집 근처 이삼백 미터 내에서 만나신다.



Part 4.

청룡마을 산책 풍경

Part 4.

청룡마을 산책풍경

조은지

푸른 하늘 빨간 깃발



의정부 신곡동 중랑천을 따라 모여든 깃발
청룡마을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청룡마을 벽화 골목



세월의 흔적 위에 그려진 벽화,
그 풍경이 생경하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대문 사이로 보이는 오래되고 희귀한 물건들
'계세요?' 하고 주인을 찾으니, 한 남자가 반갑게 맞는다.
좋아서 고치고 수집한다는 오래된 음향기기들과
그의 취향으로 물든 공간



색으로 물든 골목



길을 따라 걷다보면
 각기 다른 색을 뽐내는 골목의 정취에
 멈칫하고 서서 바라보는 순간들이 생긴다.

연지매장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재개발 준비모임 사무실
'연지슈퍼'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재개발 준비모임의 안내 벽보가
마을 곳곳에 붙어있다.

담배 슈퍼



늙고 오래된 담배 슈퍼는
아직도 활짝 열려있다.

폐가 출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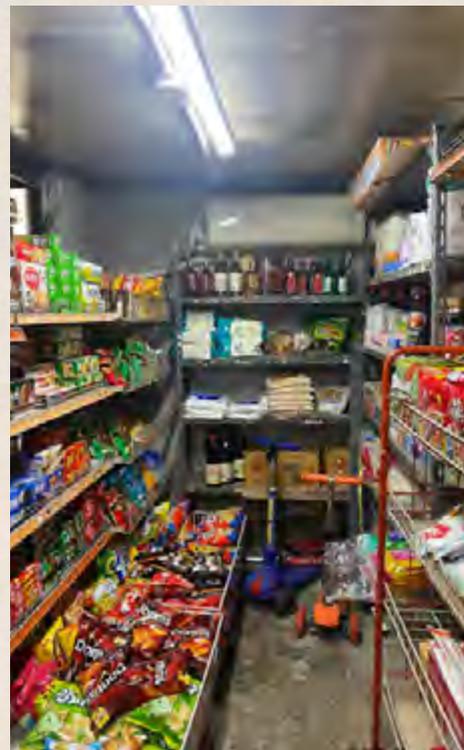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은
폐가가 되었다.

영민슈퍼 골목



이곳에서 50년을 보낸 주인 아저씨와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나눴다.



나비아

빨래 널기 좋은 골목

우리 고양이



‘새끼 벨까 봐.’

타이어 화분



무단 주차 방지와 행인들에겐 꽃을 볼 수 있는 행복을...
일석이조 아닌가.

형형색색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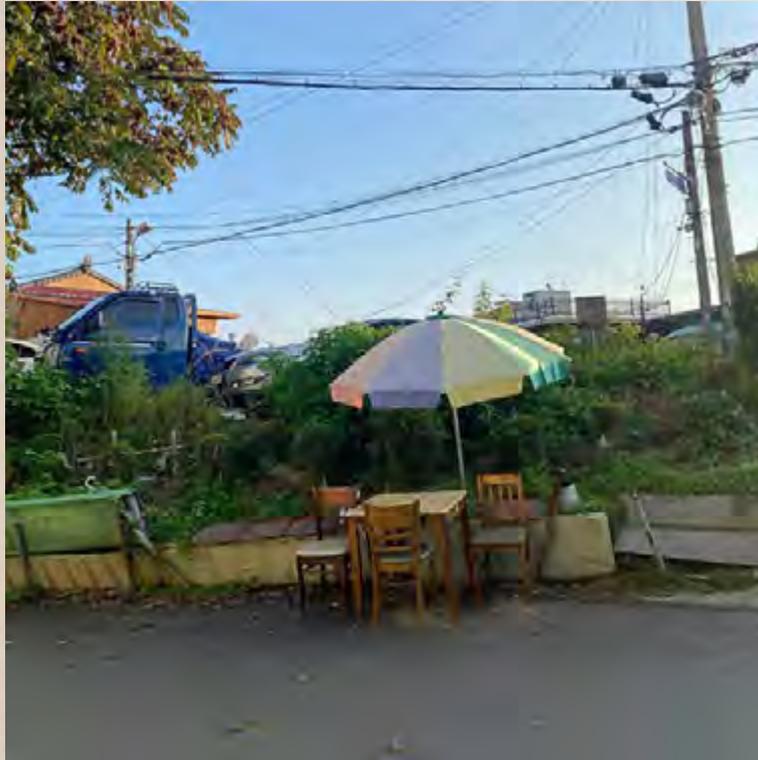
청룡마을 대문 색들은 가지각색이다.
그 자체로도 이 마을의 독특한 풍경이었다.

스산한 골목



젊은 보살의 점집 골목은 어쩐지 조용하고 쌀쌀했다.

오래된 쉼터



쉼터조차 오래되고 색이 바래버린 이 마을의 풍경이 익숙하다.

태극기 골목



태극기가 걸린 대문, 벽을 따라 올라탄 넝쿨,
오후의 가을 해가 골목을 드리운다.

누군가의 삶



독특한 풍경 깃발을 따라 다닌 청룡마을 산책
마을의 집, 마을의 사람들, 마을의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본다.
이러한 삶, 저러한 삶, 누군가의 삶이 만들어낸
이곳의 풍경이 자연스럽다.

다시 골목



그리고
다시 골목

발행일	2021. 10.
기획 진행	송재용 류자영 김세영 조은지
멘토	김태우
디자인 편집	주식회사 페오플레

이 책자는 의정부문화재단 지역문화컨문인력 양성사업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수업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